

3) 석등(石燈)

현재 순천시청 내에 있는 장명석등은 원래 순천남초등학교 앞 오거리 근처에 있던 것을 1964년 도로확장공사로 승주군청으로 이전하였다가, 1988년 주택은행 신축공사로 인하여 다시 현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다.

이 석등의 형식을 살펴보면, 지대석은 잔자갈에 묻혀 있어 보이지 않고 하대석은 큼직한 8엽의 복련으로 조식되었고 그 위에 8각의 각형 괴임대가 있다. 중대석인 간주석(竿柱石)은 8각으로 세장하며 상대석은 8엽의 양련이 시문되고 그 위에 화사석(火舍石) 받침대가 조출되었다. 4면에 화창(火窓)이 시설된 8각의 화사석은 최근까지 없었는데 다시 만들어 끼웠다. 옥개석의 낙수면은 완만하며 전각의 반전은 거의 없고, 따라서 귀꽃의 장식도 없다. 상륜부는 생략되어 보주만 올려져 있다.

이 석등은 기본이 8각형을 이루고 있어 전형양식에 속한다. 이 전형양식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광범위하게 전해졌으며, 특히 신라시대에 많이 제작되었다. 그리고 하대와 상대에 시문된 연판 모양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경북 청도의 운문사(雲門寺) 금당 앞 석등과 경주의 원원사지(遠願寺址) 석등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다. 그러나 조각기법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.

전설에 따르면 이 석등은 순천의 지형이 침침하므로 풍수설에 의거하여 이를 면하기 위해 세운 장명(長明)석등이라고 한다. 전체 높이는 2.7m 이다.